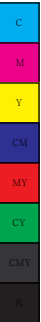


# 2016년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동향분석

Trends and Issues





# 2016년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2016. 12



# 2016년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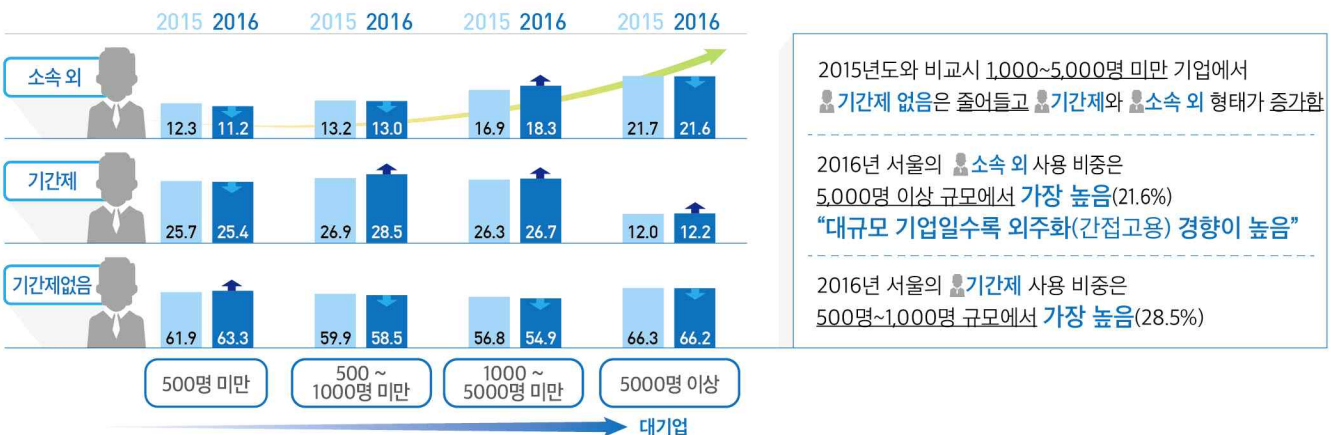
## 서울의 사업체와 기업체 종사자 비중 비교 (2014년 기준)



## 전국과 서울의 실질실업률과 청년실질실업률 변화 추이



## 서울의 기업 규모별 상시고용형태 구성비 비교





# 목 차

<b>I . 서울의 산업구조</b> .....	<b>1</b>
1. 서울의 지역총생산 .....	1
2. 사업체와 종사자 .....	4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	6
<b>II . 서울의 고용구조</b> .....	<b>10</b>
1. 경제활동인구 .....	10
2. 고용률과 실업률 .....	12
<b>III . 고용형태 공시 현황</b> .....	<b>17</b>
1. 고용형태 공시 현황 .....	17
2. 기업 규모별 고용형태 공시 현황 .....	19
3. 산업별 고용형태 공시 현황 .....	23

## <그림 차례>

■ 그림 I-1 ■ 서울의 지역총생산 변화와 증가율 변화 .....	1
■ 그림 I-2 ■ 서울의 1인당 경제지표 변화 .....	2
■ 그림 I-3 ■ 2014년도 산업별 생산성 비중 비교 .....	3
■ 그림 I-4 ■ 사업체 수와 증가율 .....	4
■ 그림 I-5 ■ 종사자 수와 증가율 .....	4
■ 그림 I-6 ■ 2014년 지역별 평균종사자 수 .....	5
■ 그림 I-7 ■ 2014년 전국, 서울, 경기 사업체 규모 구성비 .....	6

■ 그림 I-8 ■ 2014년 전국, 서울, 울산, 경기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 .....	7
■ 그림 I-9 ■ 서울시 기업체 규모 추정 .....	8
■ 그림 I-10 ■ 서울시 기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비중 추정 .....	9
■ 그림 II-1 ■ 전국, 서울시, 경기도 경제활동인구 .....	11
■ 그림 II-2 ■ 전국, 서울시, 경기도 비경제활동인구 .....	11
■ 그림 II-3 ■ 전국, 서울시, 경기도 경제활동참가율 .....	12
■ 그림 II-4 ■ 전국, 서울시, 경기도 전국 고용률 .....	13
■ 그림 II-5 ■ 전국, 서울시, 경기도 실업률 .....	13
■ 그림 II-6 ■ 전국, 서울시, 경기도 전국 청년실업률 .....	14
■ 그림 II-7 ■ 전국, 서울시, 경기도 명목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비교 .....	15
■ 그림 II-8 ■ 전국 실질실업률과 서울 실질실업률 추정치 .....	15
■ 그림 II-9 ■ 전국과 서울시의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 .....	16
■ 그림 III-1 ■ 2014년~2016년 전국 및 서울의 고용형태 공시 기업체 수 .....	17
■ 그림 III-2 ■ 2014년~2016년 전국과 서울 고용형태 공시 근로자 수 .....	18
■ 그림 III-3 ■ 2014년~2016년 전국과 서울 고용형태 공시 근로자 구성비 .....	18
■ 그림 III-4 ■ 상시고용 규모별 전국/서울 고용형태공시 기업체 수 .....	19
■ 그림 III-5 ■ 상시고용 규모별 전국/서울 고용형태공시 기업체 구성비 .....	20
■ 그림 III-6 ■ 상시고용 규모별 전국 규모별 고용형태 증가율 .....	21
■ 그림 III-7 ■ 상시고용 규모별 서울 규모별 고용형태 증가율 .....	21
■ 그림 III-8 ■ 전국 상시고용 규모별 구성비 연도별 비교 .....	22
■ 그림 III-9 ■ 서울 상시고용 규모별 구성비 연도별 비교 .....	22
■ 그림 III-10 ■ 전국, 서울 기간제 없음 규모 상위 5개 산업 .....	23
■ 그림 III-11 ■ 전국, 서울 기간제 규모 상위 5개 산업 .....	23
■ 그림 III-12 ■ 전국, 서울 소속외 규모 상위 5개 산업 .....	24
■ 그림 III-13 ■ 전국, 서울 기간제 없음 전년대비 증가율 상위 5개 산업 .....	24
■ 그림 III-14 ■ 전국, 서울 기간제 전년대비 증가율 상위 5개 산업 .....	25
■ 그림 III-15 ■ 전국, 서울 소속외 전년대비 증가율 상위 5개 산업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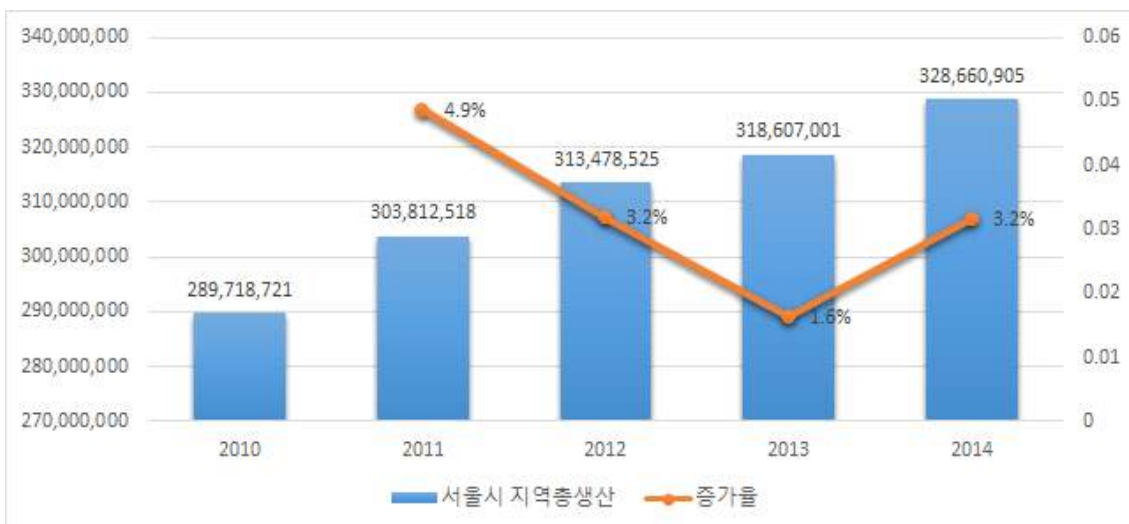
# 1. 서울의 산업구조

- 서울의 1인당 총소득은 3천 8백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1인당 민간소비 증가율은 14.3%로 증가한 것에 비해 총소득 증가율은 10.9%에 그침
- 서울의 사업체 수는 81만2천개, 사업체 1개소 당 평균 종사자는 5.83명임
- 기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지역 기업체 중 5인 미만 기업은 51.6%인 것으로 나타남. 그에 비해 서울지역 기업체 종사자 중 5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비율은 7%에 불과함 반면에 서울지역 기업체 종사자 비율 중 3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 비율은 무려 54.7%인 것으로 추정됨

## 1. 서울의 지역총생산

- 서울의 지역총생산은 328조원(2014년 기준)
  - 2014년 현재 서울 지역총생산은 328조원으로, 전국 지역총생산의 22.1%를 차지함. 경기도(22.2%)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음
  - 2010년(289조) 이후 전년 대비 지역총생산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2014년 다시 지역총생산 증가율(3.2%)이 높아짐.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2014년 경기도 지역총생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짐
  - 2010년 이후 서울 지역총생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서울 지역 인구감소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됨

【그림 1-1】 서울의 지역총생산 변화와 증가율 변화 (단위 : 백만원,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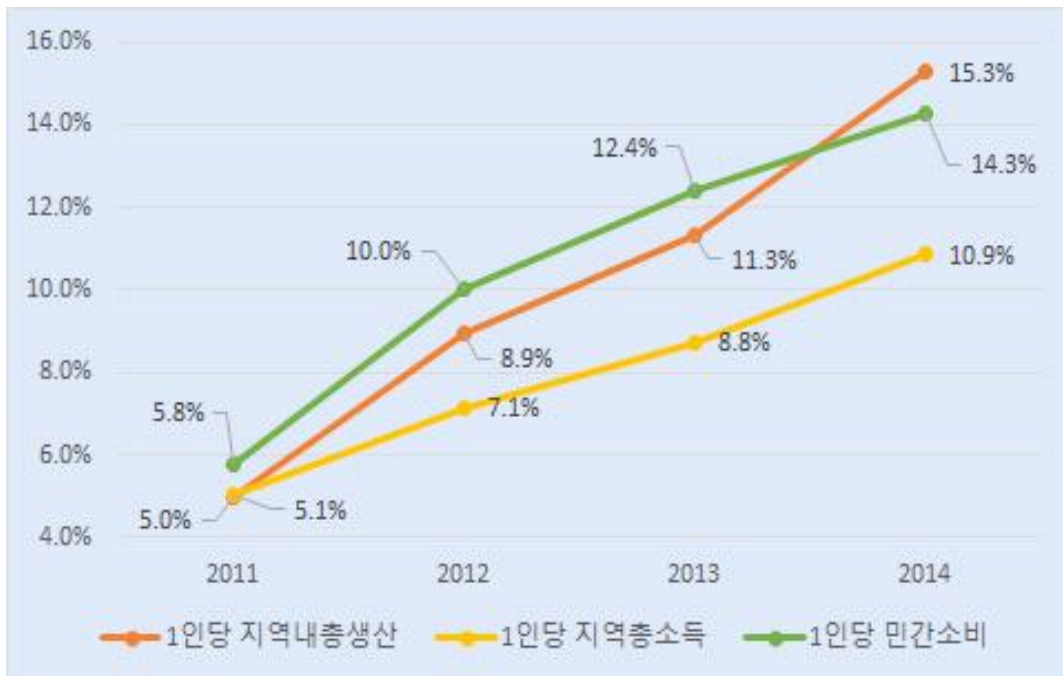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의 1인당 총소득은 약 3천 8백만원(2014년 기준)

- 2014년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은 15.3%로, 같은 기간 전국 지역총생산 증가율(13.4%)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1인당 민간소비 증가율과 1인당 지역총소득 증가율 격차는 2011년 0.7%p에 불과했으나 2012년 2.9%p, 2013년 3.6%p, 2014년 3.4%p로 증가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1인당 민간소비 증가율에 비해 1인당 지역총소득 증가율을 넘어서 소비중심의 거대도시로 볼 수 있음. 또한 소비증가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낮아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 그림 1-2 ■ 서울의 1인당 경제지표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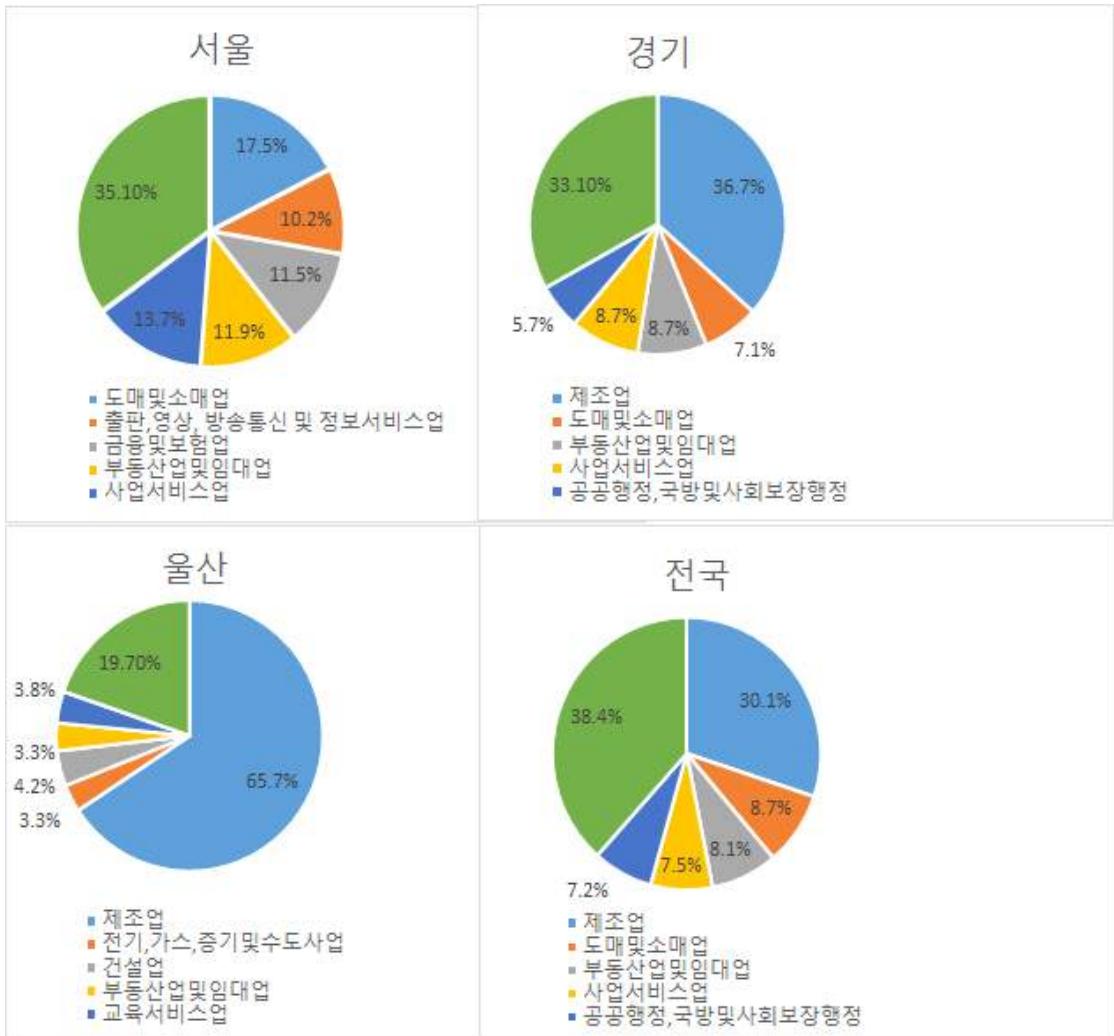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은 도시형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심인 도시

- 서울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상위 5개 산업은 도시형 소비산업인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임
- 반면에 서울지역 제조업 비중은 6.3%로 전국 제조업 비중 30.1% 보다 현저히 낮으며 탈 제조업의 특성을 보임
- 이와 달리 경기(36.7%)와 울산(65.1%)의 생산성 1위 산업은 제조업으로 서울과 다른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림 1-3 ■ 2014년도 산업별 생산성 비중 비교 (상위 5개 산업)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국가통계포털(KOSIS)

## 2. 사업체와 종사자

□ 서울의 사업체 수는 81만2천 개소(2014년 기준)로 전국 최대

- 서울의 사업체 수(812,798개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짐(2위 경기도 810,260개소). 그러나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서울시와 경기도 사업체 증가율은 각각 3.5%와 4.8%로, 서울시 보다 경기도의 사업체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사업체 수와 증가율 (단위 : 개,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의 종사자 수는 473만9천명(2014년 기준) 전국 최대

- 2014년 현재 서울지역 종사자 수(4,739,883명)는 전국에서 가장 많음(2위 경기도 4,471,773명)

┃그림 1-5┃ 종사자 수와 증가율 (단위: 개, 1=10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그러나 2010년 대비 2014년 종사자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울의 종사자수 증가율은 5.6% 에 불과하나 경기도의 종사자수 증가율은 19.3%에 달함

□ 서울지역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수는 5.83명(2014년 기준)

- 서울지역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10년 6.15명 이었으나, 2014년 현재 1개소 당 5.83명으로 감소함
- 서울지역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는 5.83명으로 전국(5.22명)과 경기지역(5.52명)보다 많고, 울산(6.45명)보다 적음

■그림 1-6■ 2014년 지역별 평균종사자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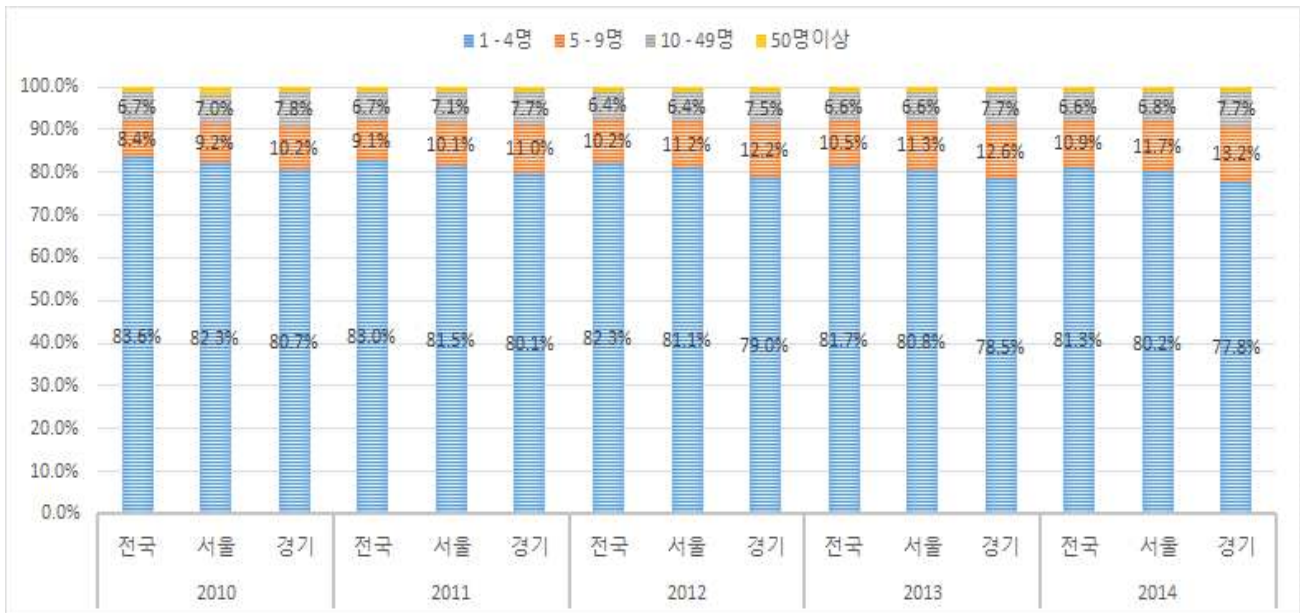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 서울지역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체 비율은 80.2%(2014년 기준)

- 2014년 현재 서울지역 5인 미만 사업체 비율은 80.2%로 경기(77.8%) 보다 높고 전국(81.3%) 보다는 낮음
- 서울의 2010년 대비 2014년 5인 미만 사업체 비율은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1.7%p) 과 경기 지역(2.3%p)에 비해 감소율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2014년 전국, 서울, 경기 사업체 규모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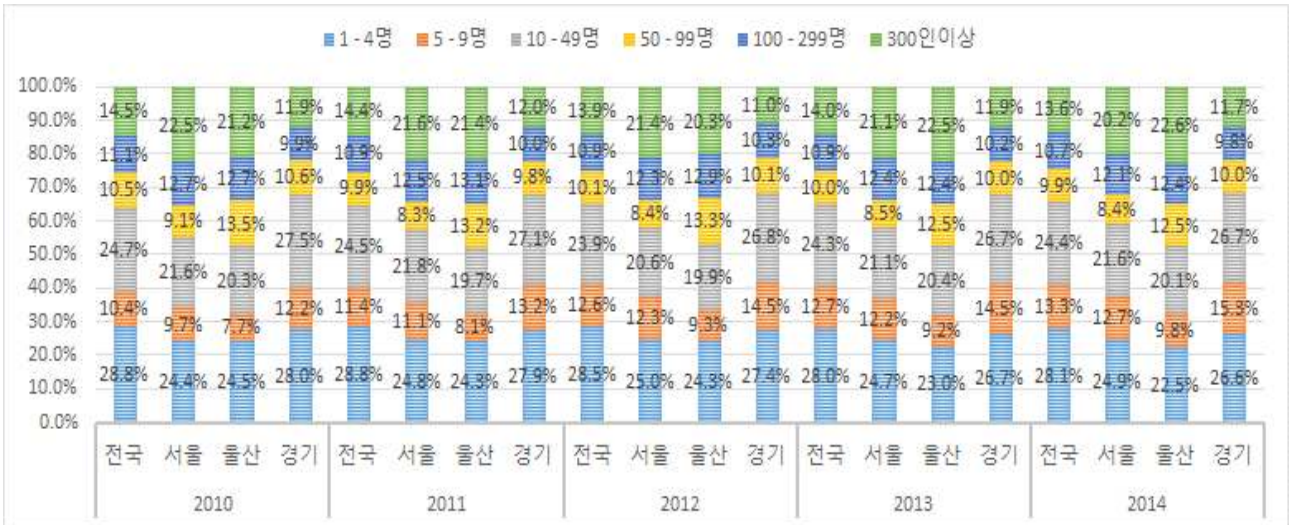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의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20.2%로 감소 추세(2014년 기준)이나 그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사업체 종사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전국 평균(14.5%→13.6%), 서울(22.5%→20.2%), 경기(11.9%→11.7%) 등 모든 지역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외적으로 울산 지역만 21.2%에서 22.1%로 증가함
- 2014년 현재 서울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20.2%로, 2010년 대비 2014년 구성 비율이 2.3%p(22.5%→20.2%) 감소하였으나, 경기(11.7%p)와 전국 평균(13.6%p)보다는 높음
- 2014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서울 지역은 24.9%로, 전국(28.1%)과 경기(26.6%)보다 낮음. 2014년 현재 서울 지역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24.9%)은 2010년 비율(24.4%) 대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 2014년 전국, 서울, 울산, 경기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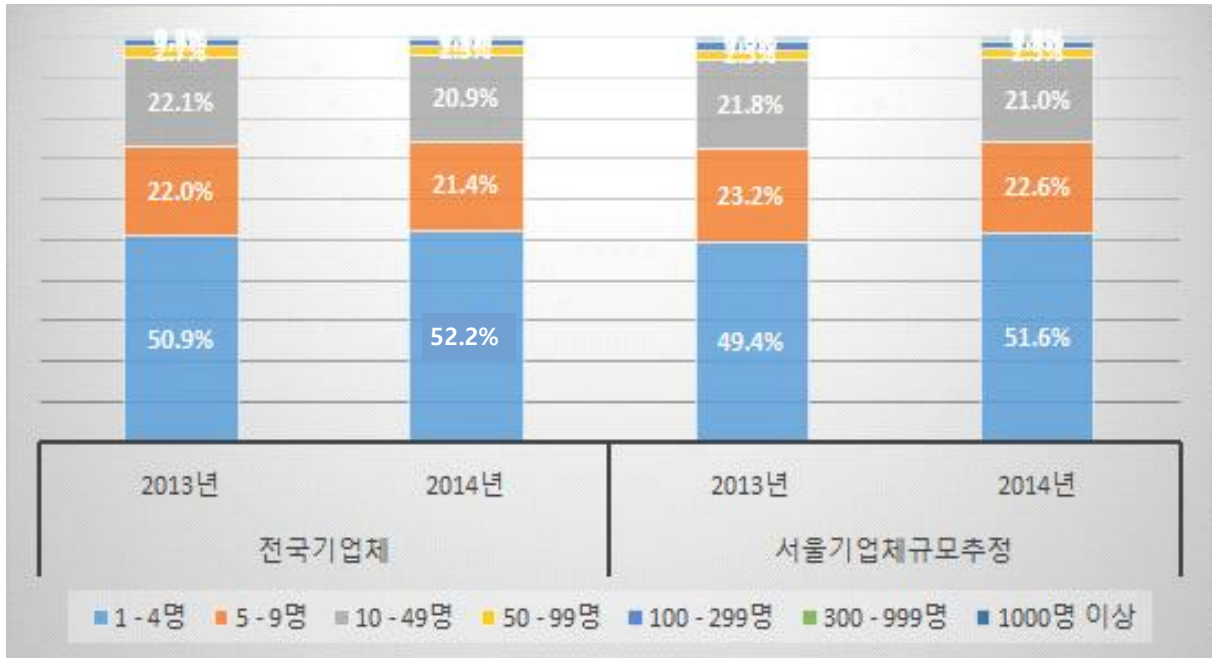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일반적으로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통계가 제시되고 있으나, 사업체조사는 기업체 단위와 달라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이 5개의 지점이 있다면 사업체 조사에서는 5개의 사업체가 되지만, 기업체 조사는 1개의 기업체로 보게 되어 종사자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따라서 정책 지표로 삼기 위해서는 사업체 규모가 아닌 기업체 규모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기업체 규모별 통계가 최근어야 제공되기 시작했고 시도별 통계가 제공되지 않지만, 추정치로나마 파악해서 정책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5인 미만 기업체 비율은 전국 52.2%, 서울지역 추정치는 51.6%<sup>1)</sup>
- [영리법인기업체통계]는 전국의 5인 미만 기업체 비율을 52.2%로 전국사업체조사(80.2%)보다 28.0%p 낮게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체 비율은 0.5%로 전국사업체 조사보다 0.4%p 낮게 제시함
- [영리법인기업체통계]를 바탕으로 2014년 서울지역 기업체 규모를 추정해 보면, 5인 미만 기업체 비율은 51.6%로, 전국사업체조사(80.2%) 보다 28.6%p 대폭 낮아짐. 300인 이상 기업체 비율은 0.8%로, 전국사업체조사(0.1%) 보다 0.7%p 높아짐
- 2013년 서울지역 기업체 규모 추정치와 2014년 서울지역 기업체 규모 추정치를 비교하면 5인 미만 기업체 비율은 1.2%p 증가 했으며, 300인 이상 기업체 비율은 0.4%p 감소하였음

1) 전국기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가 전국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수에서 서울 규모별 기업체 종사자 수와 비율을 추정함

【그림 1-9】 서울시 기업체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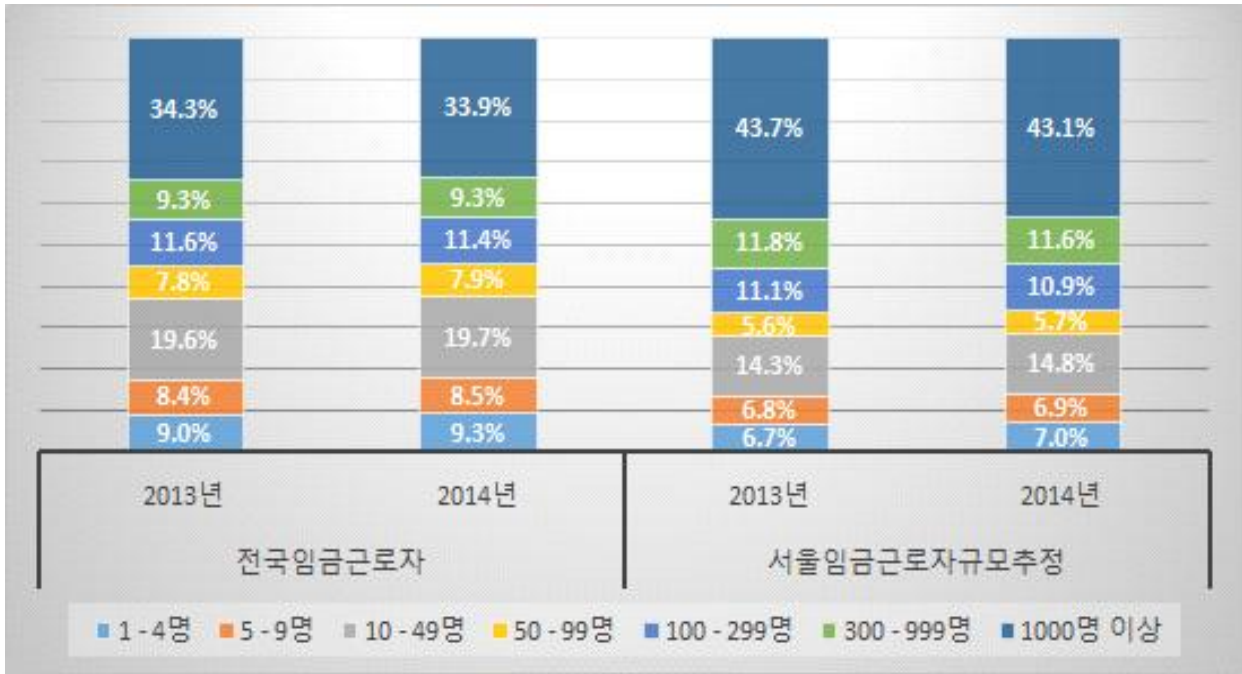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3~4년 기준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통계청 「2013~4년 임금근로자일자리통계 조직형태편」

□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지역 5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수 비율은 7.0%로 낮아지고, 3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 비율은 54.7%, 1,0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 비율은 4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sup>2)</sup>

- 「임금근로자일자리통계」를 활용해 서울의 종사자 수와 구성비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 전국 5인 미만 기업체 소속 종사자 수는 158만 3천명(9.3%)로, 전년 대비 10만 2천명(0.3%)이 증가함
- 전국 300인 이상 기업체에 소속된 종사자 수는 2014년 737만 8천명(43.2%)로, 2013년 대비 18만 4천명(2.4%)이 증가함
- 서울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에 비해 3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 수는 466만 3천명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달리 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에 비해 5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수는 400만 3천명이 적은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현재 서울지역 기업체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를 추정해 보면 5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비중은 7%로, 서울지역 사업체 기준 5인 미만 종사자 비중인 24.9%보다 낮아짐.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 비율은 54.7%로, 서울지역 사업체 기준 300인 이상 종사자 비중 20.2% 보다 대폭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현재 서울시 1,000인 이상 대형 기업체 종사자 비중이 무려 43.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서울 기업체 규모별 종사자 추정치와 비교시, 2014년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구성비는 0.3%p 증가 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구성비는 0.8%p 감소함

2) [임금근로자일자리통계]의 전국 기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비율 대비 전국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비율을 구하여 서울 지역 기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비율 추정치를 산출함

【그림 1-10】 서울시 기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비중 추정



자료 : 통계청 「2013~4년 기준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통계청 「2013~4년 임금근로자일자리통계 조직형태편」

- [영리법인기업체통계]와 [임금근로자일자리통계]를 활용한 서울지역 기업체 규모와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 비율 추정치 산출 결과 서울은 1,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체 중심으로 고용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년도와 같이 2014년 경우에도 서울시 기업체 규모 및 규모별 임금근로자 추정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정책방향을 논할 때, 사업체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과 고용 비중을 제시했던 것과 동시에 기업체를 중심으로 파악한 기업체 비중과 종사자 분포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사업체 규모와 달리 기업체 규모로 파악할 때 대규모 기업의 비중과 대기업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낮다는 것은 중소기업사업체 종사자와 취약 노동계층을 동일시했던 데서 나아가 더 많은 보완적인 해석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기업체 수 비중도 고용 비중도 낮다고 해서 취약 노동계층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규모 기업과 대기업의 고용 책임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며, 하청·도급·용역·파견·특수고용 등 임의로 집계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소속 외 노동자 즉,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양상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취약노동계층 존재 양상을 파악할 때 기존 통계의 한계를 넘어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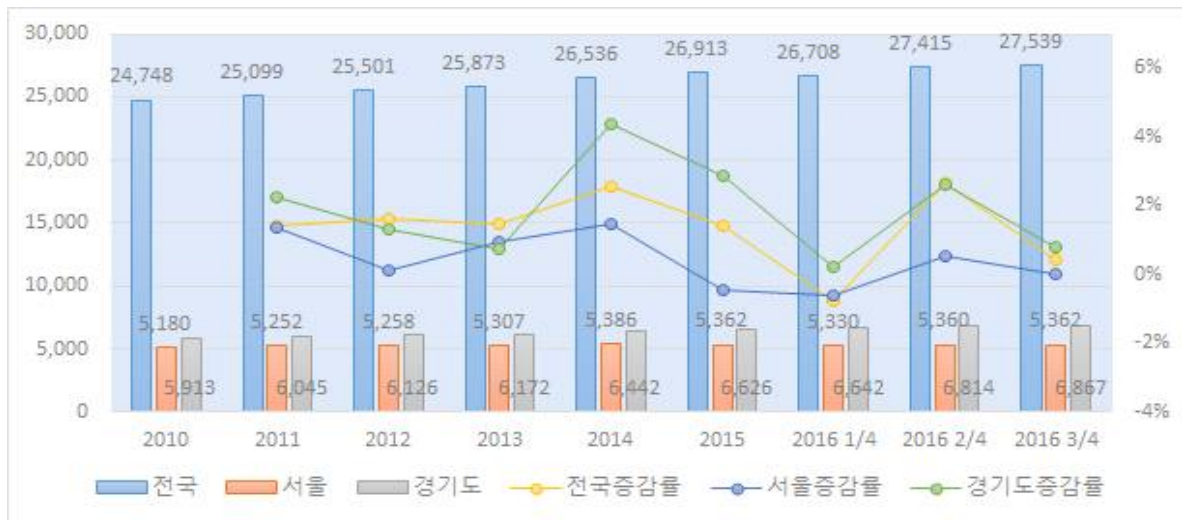
## II. 서울의 고용구조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3분기 기준 536만 2천명(2010년 대비 3.5%p, 18만 2천명 증가)이고,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15만 6천명(2010년 대비 1.5%p, 4만 9천명 감소)임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1.8%에서 2014년 63.4%로 1.4%p 증가하였다가 2016년 3분기 현재 62.7%로 2014년 대비 약간 감소(0.7%p)하여 전국 평균과 비슷해짐
- 서울의 고용률은 2016년 3분기 평균 59.9%(2015년 대비 0.1%p 감소, 2010년 대비 1%p 증가)이고, 서울의 고용률 증가 추세는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완만함
- 2016년 서울의 청년실업률(3분기까지 평균)은 10.6%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 3분기 현재 서울의 명목실업률(4.1%) 대비 명목청년실업률(9.5%)은 2.32배가 높음(2010년 1.8배, 2015년 2.21배). 이 격차는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작지만, 그 정도와 속도는 빠름
- 추정치로 파악한 서울의 실질실업자 수는 2010년 93만 4천명에서 2016년 2분기 99만 2천명으로 5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2016년 2분기 실질실업률 추정치는 16.4%로 명목실업률 4.4%(2016년 3분기까지 평균)에 비해 3.72배가 높음
- 서울의 청년실질실업자 수와 실업률 추정치는 2016년 2분기 40만 6천명, 34.9%이고, 전국의 청년실질실업자 수와 실업률 추정치는 193만 2천명, 36.5%임

### 1. 경제활동인구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536만 2천명(2016년 3분기 기준)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518만명에서 2014년 538만 6천명(2010년 대비 20만 6천명 증가)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536만 2천명, 2016년 3분기 현재 536만 2천명으로 감소함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대비 3.5%p(18만 2천명) 증가하였지만, 2015년 대비 동일하며, 근래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대비 0.5%p(2만 4천명) 감소함
  - 전국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474만 8천명에서 2015년 2691만 3천명, 2016년 3분기 2753만 9천명(2010년 대비 11.3%p, 전년 대비 2.3%p 증가)으로 증가함
  - 경기도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591만 3천명에서 2015년 662만 6천명(전년 대비 2.9%p 증가), 2016년 3분기 686만 7천명(2010년 대비 16.1%p 증가, 전년 대비 3.6%p 증가)으로 증가함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은 2010년 대비 전국(11.3%p)과 경기도(16.1%p), 2015년 대비 전국(2.3%p)과 경기도(3.6%p)에 비해 낮음(2010년 대비 3.5%p, 2015년 대비 동일)

Ⅱ-1 | 전국, 서울시, 경기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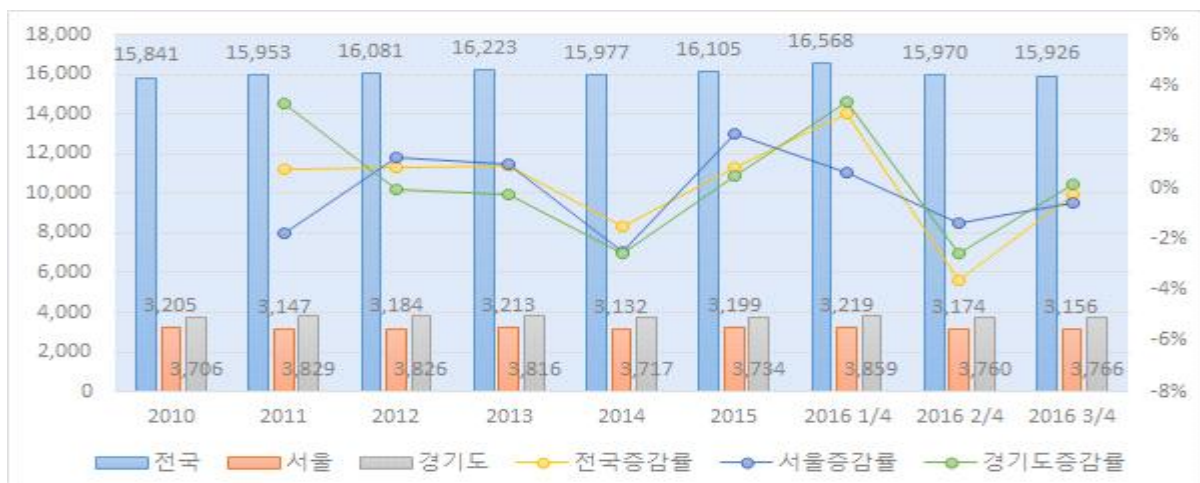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15만 6천명(2016년 3분기 기준)

-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320만 5천명에서 2015년 319만 9천명, 2016년 3분기 현재 315만 6천명(2010년 대비 1.5%p, 4만 9천명, 2015년 대비 1.3%p, 4만 3천명 감소)으로 감소함
- 전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1,584만 1천명에서 2015년 1,610만 5천명, 2016년 3분기 현재 1,592만 6천명(2010년 대비 0.5%p, 8만 5천명 증가, 2015년 대비 -1.1%p, 17만 9천명 감소)으로 증가함
- 경기도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370만 6천명에서 2015년 373만 4천명, 2016년 3분기 현재 376만 6천명(2010년 대비 1.6%p, 6만명 증가, 2015년 대비 0.9%p, 3만 2천명 증가)으로 증가함
- 전국과 경기도의 비경제활동인구수가 2010년 대비 증가한 반면,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Ⅱ-2 | 전국, 서울시, 경기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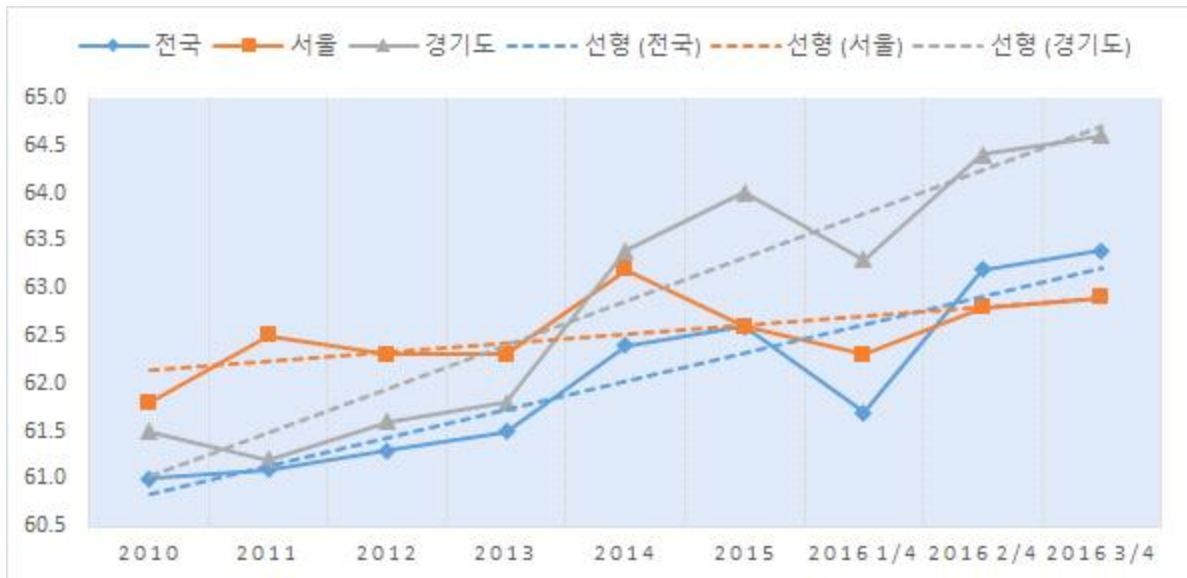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평균 62.7%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3분기까지 평균 62.7%로 2015년 대비 0.1%p, 2010년 대비 0.9%p 증가함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2015년 이후 전국 평균과 비슷하며, 경기도는 2014년 이후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넘어서고 있음

┃그림 II-3┃ 전국, 서울시, 경기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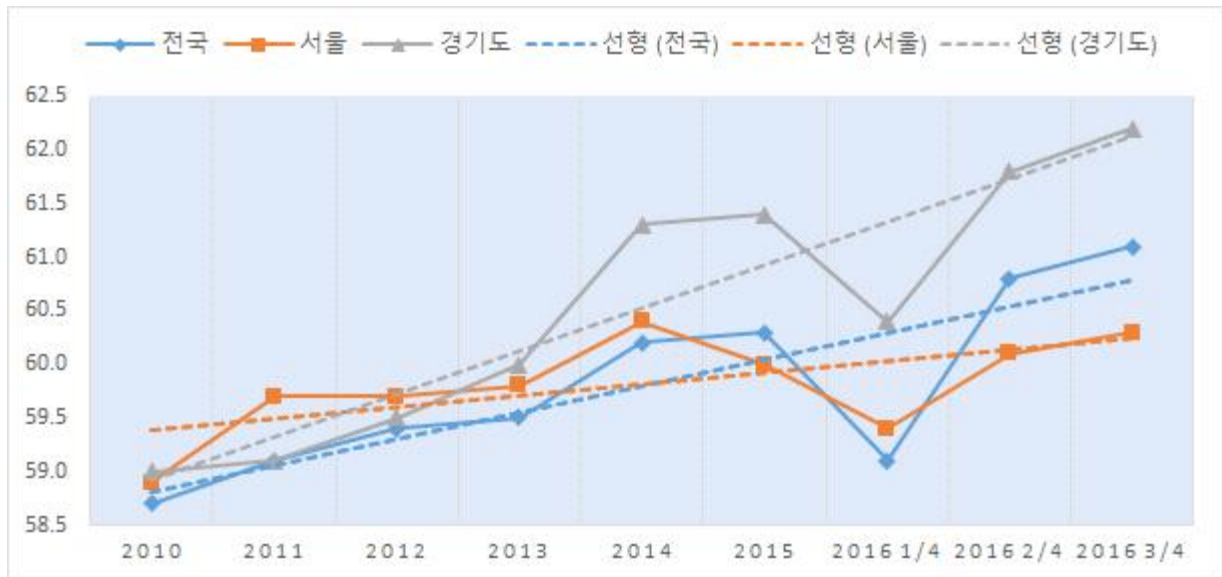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2. 고용률과 실업률

□ 서울의 고용률은 59.9%(2016년 3분기까지 평균)

- 2016년 3분기 평균 서울의 고용률은 59.9%로 2015년 60% 대비 0.1%p 감소, 2010년 58.9% 대비 1%p 증가함
- 2015년 서울의 고용률(60%)은 전국(60.3%)과 경기도(61.5%)에 비해 낮으며, 2010년 대비 증가율도 전국과 경기도와 비해 낮음
- 서울의 고용율의 추세를 보면, 서울의 고용률은 2010~2014년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2015년 이후 전국 평균에 역전되었고, 2011~2012년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으나 2013년 이후 경기도 평균에 역전 되었음. 서울의 고용률 증가 추세는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완만하며,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소비형 부가가치산업의 침체로 제조업 중심의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고용율의 증가속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임

【그림 II-4】 전국, 서울시, 경기도 전국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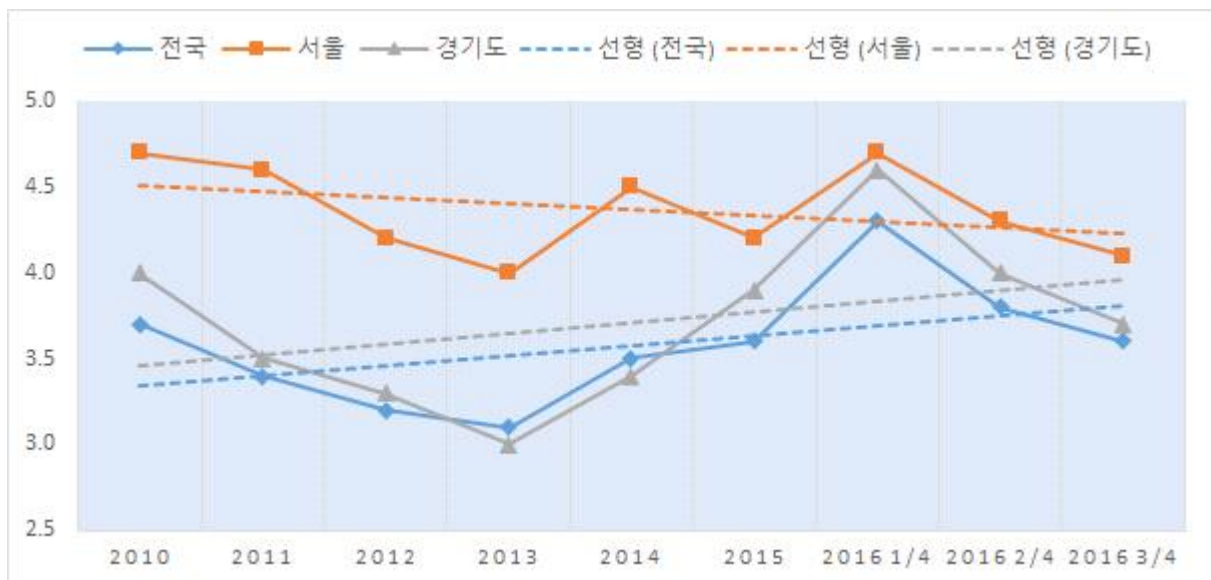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국가통계포털(KOSIS), 구직활동 4주 기준, 실업률

□ 서울의 실업률은 4.4%(2016년 3분기까지 평균)

- 2016년 3분기 평균 서울의 실업률은 4.4%이며, 이는 2015년 대비 0.2%p 증가, 2010년 대비 0.3%p 감소한 수치임
- 2010년 이후 전국과 경기도의 실업률 추세가 증가하는데 비해, 서울의 실업률 추세는 2010년 대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하지만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과 경기도의 실업률보다는 높음

【그림 II-5】 전국, 서울시, 경기도 실업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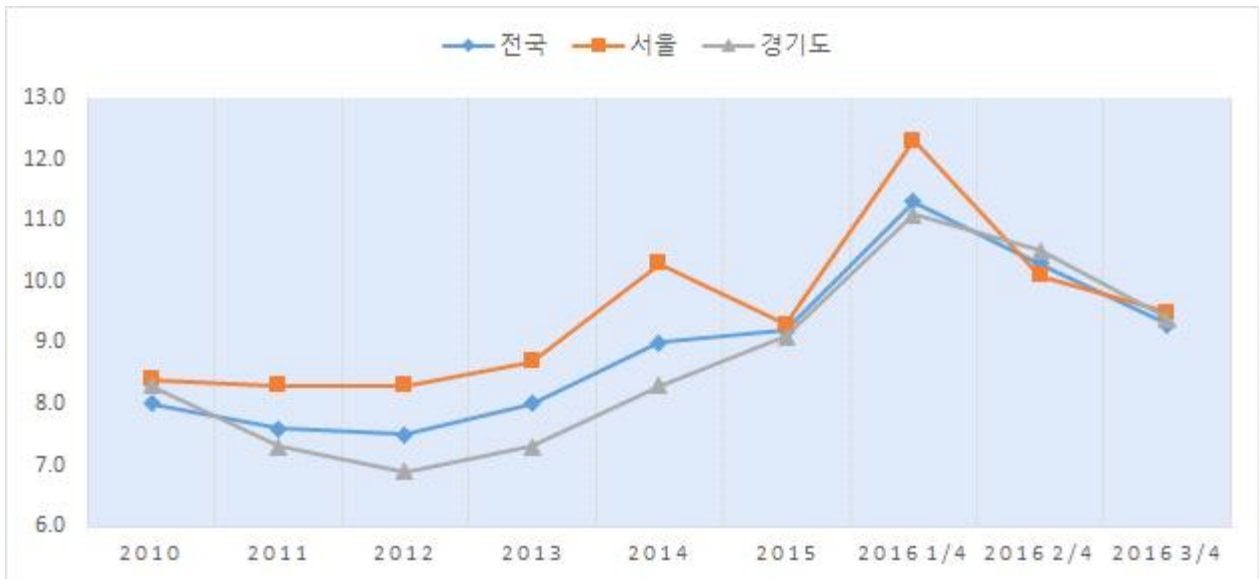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의 청년 실업률은 10.6%(2016년 3분기까지 평균)로 증가 추세이고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약간 높음

-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10년 8.4%에서 2015년 9.3%, 2016년 3분기 평균 10.6%(2010년 대비 2.2%p, 2015년 대비 1.3%p 증가)로 증가함
- 전국의 청년실업률은 2010년 8.0%에서 2015년 9.2%, 2016년 3분기 평균 10.3%(2010년 대비 1.7%p, 2015년 대비 0.1%p 증가)로 증가함
-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2010년 8.3%에서 2015년 9.1%, 2016년 3분기 평균 10.3%(2010년 대비 2.0%p, 2015년 대비 1.2%p 증가)함
- 2016년 3분기 현재의 청년실업률은 서울 9.5%, 전국 9.3%, 경기 9.4%로 거의 차이가 없음

■그림 II-6■ 전국, 서울시, 경기도 전국 청년실업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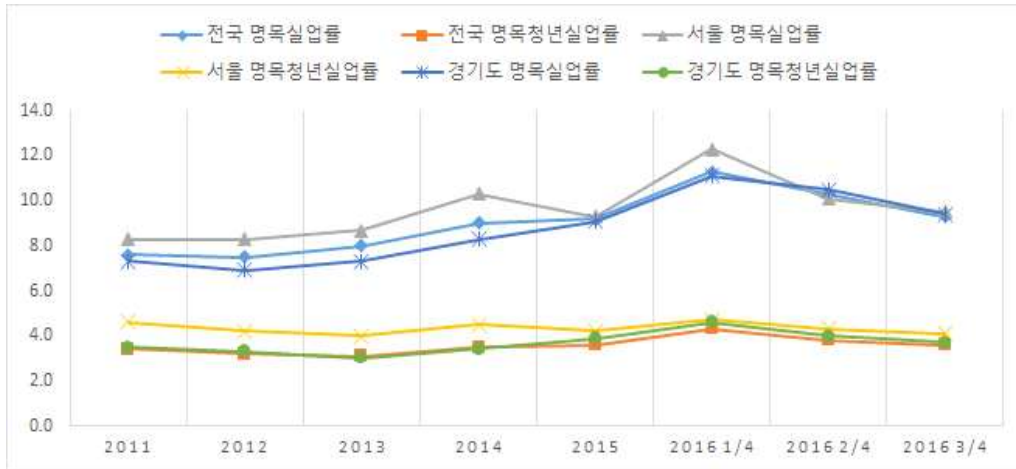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 명목실업률 대비 명목청년실업률 2.32배(2016년 3분기 현재 기준)

- 서울의 명목실업률은 2016년 3분기 4.1%, 명목청년실업률은 9.5%로,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서울의 일반실업률 대비 2.32배가 높음. 이 격차는 2010년 1.8배, 2015년 2.21배로 2010년 이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 전국의 명목실업률은 2016년 3분기 3.6%, 명목청년실업률은 9.3%로, 전국의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 대비 2.58배가 높음(2010년 2.24배, 2015년 2.56배)
- 경기도 명목실업률은 2016년 3분기 3.7%, 청년 명목실업률은 9.4%로, 경기도의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 대비 2.54배가 높음(2010년 2.09배, 2015년 2.33배)
- 서울은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명목실업률 대비 명목청년실업률 격차가 가장 작았으나, 이 격차가 벌어지는 정도와 속도는 빠름

【그림 Ⅱ-7】 전국, 서울시, 경기도 명목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비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2016년 2분기까지 평균 서울의 실질실업자 추정치<sup>3)</sup> 규모는 99만 2천명, 실질실업률은 16.4%<sup>4)</sup>

- 추정치로 파악한 서울의 실질실업자 수는 2010년 93만 4천명에서 2016년 2분기 평균 99만 2천명으로 5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서울의 실질실업률 추정치는 16.4%로 명목실업률 4.4%(2016년 3분기까지 평균)에 비해 3.72배가 높음.
- 전국의 실질실업자 수는 2010년 423만 9천명에서 2016년 2분기 506만 3천명으로 82만 4천명이 증가하였고, 전국의 실질실업률은 16.3%로 명목실업률 3.6%(2016년 3분기 현재)에 비해 4.52배가 높음

【그림 Ⅱ-8】 전국 실질실업률과 서울 실질실업률 추정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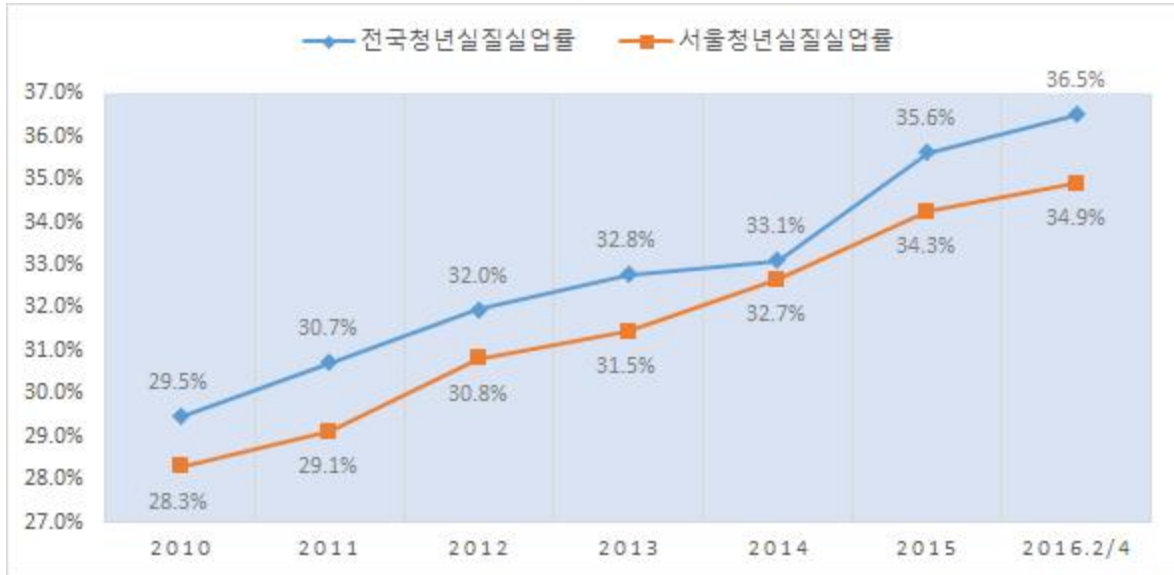
3) 서울의 실질실업자 추정치 = 서울 명목실업자+불완전취업자(18시간 미만)+(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통학+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추정치)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통학+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는 전국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통학+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에서 추정하였음.

4) 서울의 실질실업률 추정치 = 서울의 실질실업자 추정치/(서울의 경제활동인구+(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통학+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추정치))×100

□ 서울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sup>5)</sup>는 40만 6천명이며, 실질실업률 추정치는 34.9%<sup>6)</sup>임

- 서울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는 40만 6천명이고, 서울의 청년실질실업률은 2016년 2분기까지 평균 34.9%로 추정됨
- 전국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sup>7)</sup>와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sup>8)</sup>는 2010년 147만 1천명, 29.5%에서 2016년 2분기 193만 2천명, 36.5%로 증가함

▣ 그림 II-9 ▣ 전국과 서울시의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국가통계포털(KOSIS)

- 5) 서울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 = 서울의 명목청년실업자+서울의 ‘청년 시간제일자리(주당 18시간 미만)’ 추정치+(서울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서울의 ‘취업을 위한 통학+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추정치)
  - 서울의 청년 시간제일자리 규모 추정치는 전국 청년 경찰 인구대비 전국 경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성/연령별 근로 형태별 취업자 시간제 비중을 서울의 청년 경찰인구에 비취 산정함
  - 서울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서울의 ‘취업을 위한 통학+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규모 추정치는 전국 청년 비경찰 인구 대비 ‘취업을 위한 통학+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비중을 서울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취 산정함
  - 2011년 이후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의 중복이 고려되지 못함
- 6) 서울의 청년실질실업률의 추정치 = 서울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 / (서울의 청년경제활동인구+(서울의 청년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통학+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추정치) × 100
- 7) 전국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 = 전국 명목청년실업자+전국의 청년 시간제일자리(주당 18시간 미만) 추정치+(전국의 비경찰인구 중 취업준비 비율×전국 청년 비경찰인구)+(전국의 비경찰인구 중 취업을 위한 통학+취업준비×0.73[청년 취업준비 평균])+(전국 비경찰인구 중 구직단념자×0.3[청년 구직단념자 평균])
- 8) 전국의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 = 전국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 / (전국의 청년경제활동인구+(전국의 청년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통학+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추정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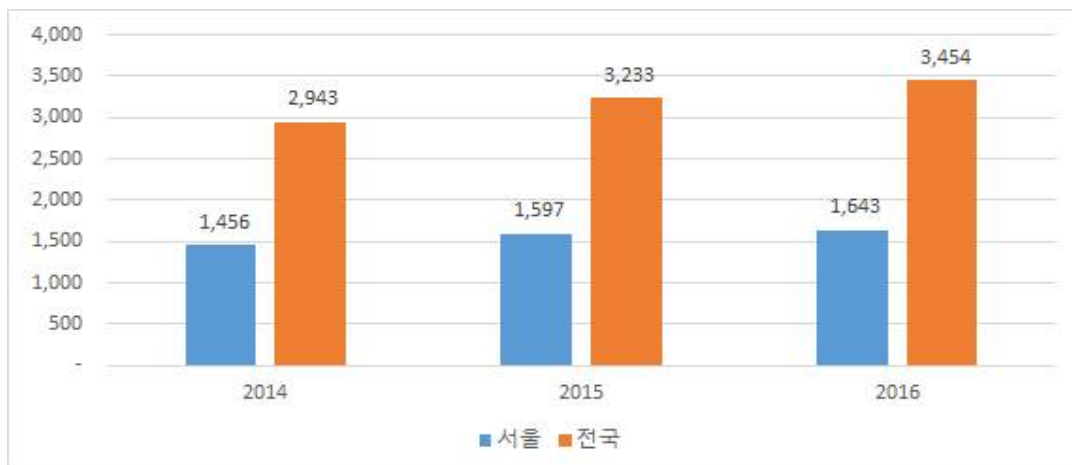
### Ⅲ. 고용형태 공시 현황

-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현황을 고용형태별로 고용안정정보망에 공시하는 제도로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동일 그룹 계열이라도 각각 별도의 법인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공시하도록 함
- 그러나 본 제도는 공시 대상 기업의 자발적 기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다는 점이 큰 한계임.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모병원은 비정규직 2,944명을 신고하였으나 공시된 규모는 600여명에 불과하였음
- 또한 기업체 직접고용 규모가 300인 미만이지만 소속외 근로자 수가 다수인 경우 공시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접고용 규모가 큰 사업장이 제외될 우려가 있음
- ※ 본 파트에서 살펴보고 있는 지역별 고용형태는 사업장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본사가 서울에 있고 생산공장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도 고용형태의 규모와 내용이 서울지역으로 공시되고 있는 관계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 고용형태 공시 현황

- 2016년 고용형태 공시 기업체 수는 서울지역이 1,634개로 전국(3,454개)의 47.6%를 차지함
  - 서울지역 고용형태 공시기업체는 2014년 전체의 49.5%에서 2016년 47.6%로 2.1%p 감소
  - 2016년도 고용형태 공시 기업체 수는 2014년 대비 전국은 511개, 서울은 187개 증가

┃그림 Ⅲ-1┃ 2014년~2016년 전국 및 서울의 고용형태 공시 기업체 수(단위 : 개)



자료 : 고용노동부, 연도별 고용형태 공시 자료

□ 서울지역 기업체의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전국의 63.5%를 차지함

- 공시기업 중 ‘기간제 없음’은 서울이 166만명으로 전국(290만명)의 57.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과 비교하여 14.3%p가 증가
- 공시기업 소속의 기간제는 서울이 57만 2천명으로 전국(90만명)의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과 비교하여 21.5%p가 증가
- 2016년도 ‘소속 외 근로자’ 규모는 서울이 49만 5천명으로 전국(93만 1천명)의 53.1%를 차지, 2014년 대비 11%p가 증가

【그림 III-2】 2014년~2016년 전국과 서울 고용형태 공시 근로자 수(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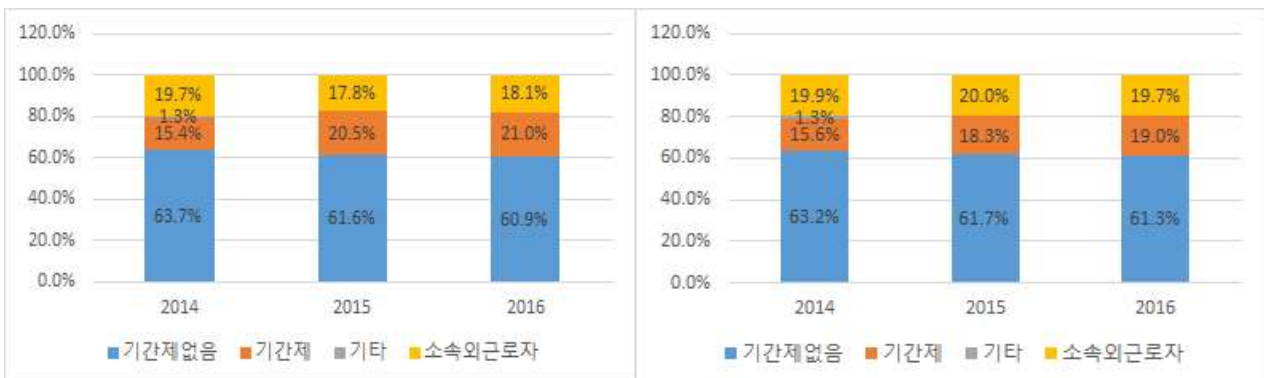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연도별 고용형태 공시 자료

□ 서울의 고용형태 공시 소속외근로자 구성비 19.7%로 전국보다 높아

- 2016년 결과 중 서울의 ‘기간제 없음’ 비중은 61.3%로 전국의 60.9%보다 높아 고용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9.7%로 전국(18.1%)보다 높아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국 및 서울 모두 ‘기간제 없음’의 비중은 2014년 이후 감소했으며 ‘기간제’ 비중과 ‘소속 외’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I-3】 2014년~2016년 전국과 서울 고용형태 공시 근로자 구성비(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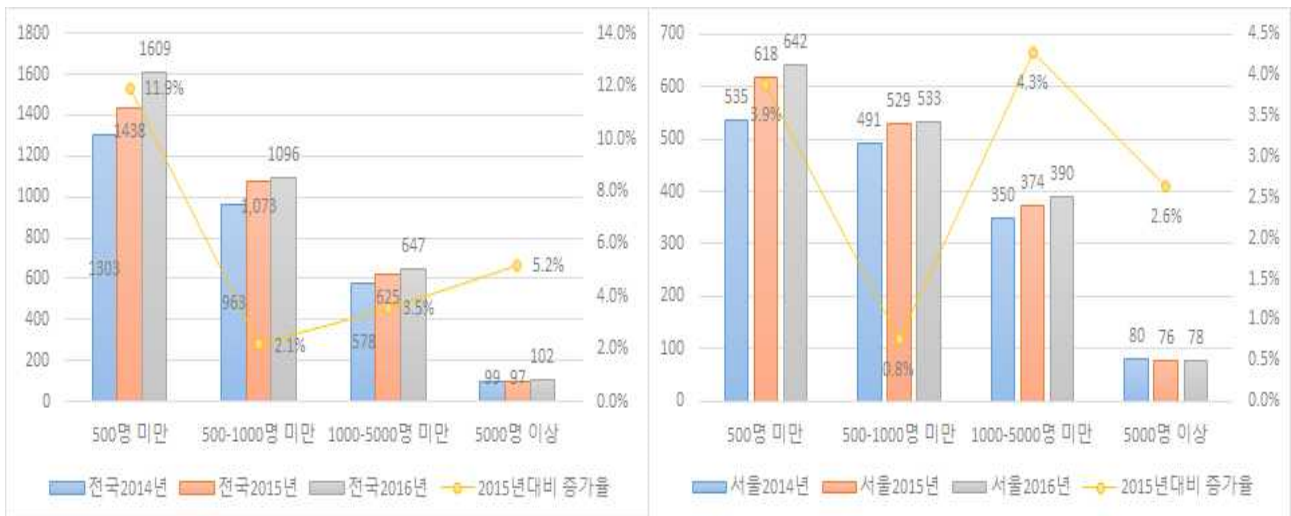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연도별 고용형태 공시 자료

## 2. 기업 규모별 고용형태 공시 현황

□ 공시 기업체 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는데 전국은 500명 미만 규모에서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1,000명~5,000명 규모에서 크게 증가

- 전국의 공시 기업체 수는 전년대비 221개 증가했으며, 상시고용 500인 미만에서 다수 증가
- 서울의 기업체 수는 전년대비 46개 증가했으며, 상시고용 1,000~5,000인 미만에서 다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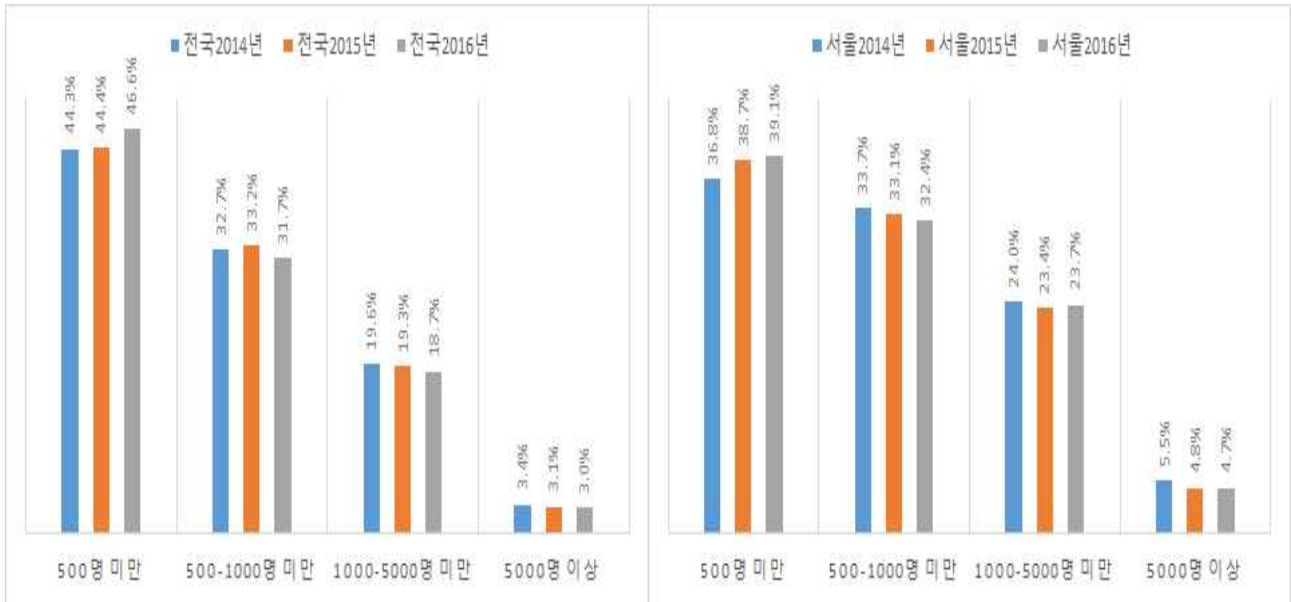
【그림 III-4】 상시고용 규모별 전국/서울 고용형태공시 기업체 수



□ 규모별 공시기업 분포를 보면, 전국과 서울 모두 50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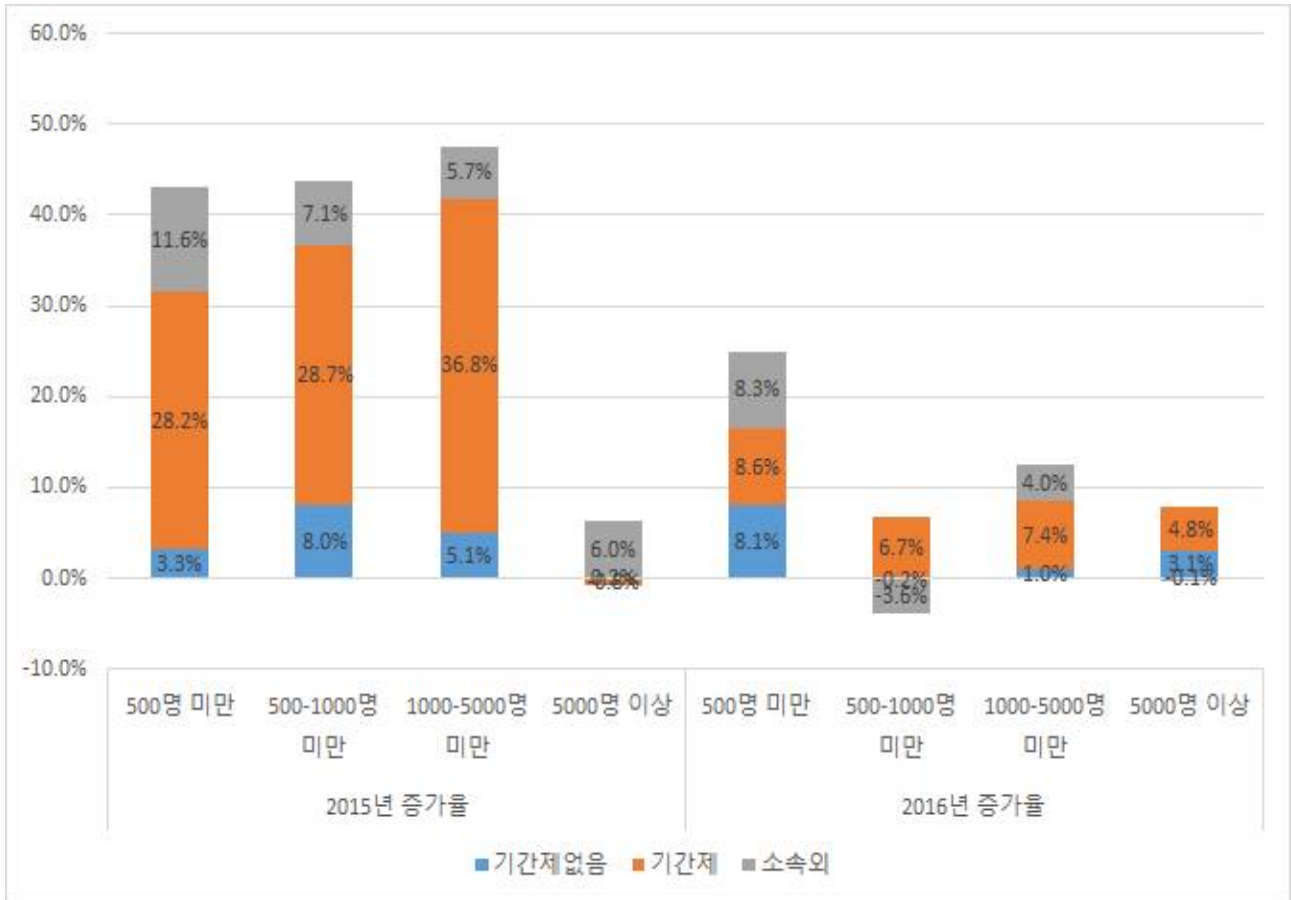
- 전국은 5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 전체의 46.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음
- 서울 역시 500인 미만 규모가 39.3%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14년 대비 2.3%p 증가함
- 그러나 5,000명 이상의 구성비를 보면, 서울이 4.7%로 전국(3.0%)보다 높는데, 이는 서울의 경우 대규모 기업의 본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III-5】 상시고용 규모별 전국/서울 고용형태공시 기업체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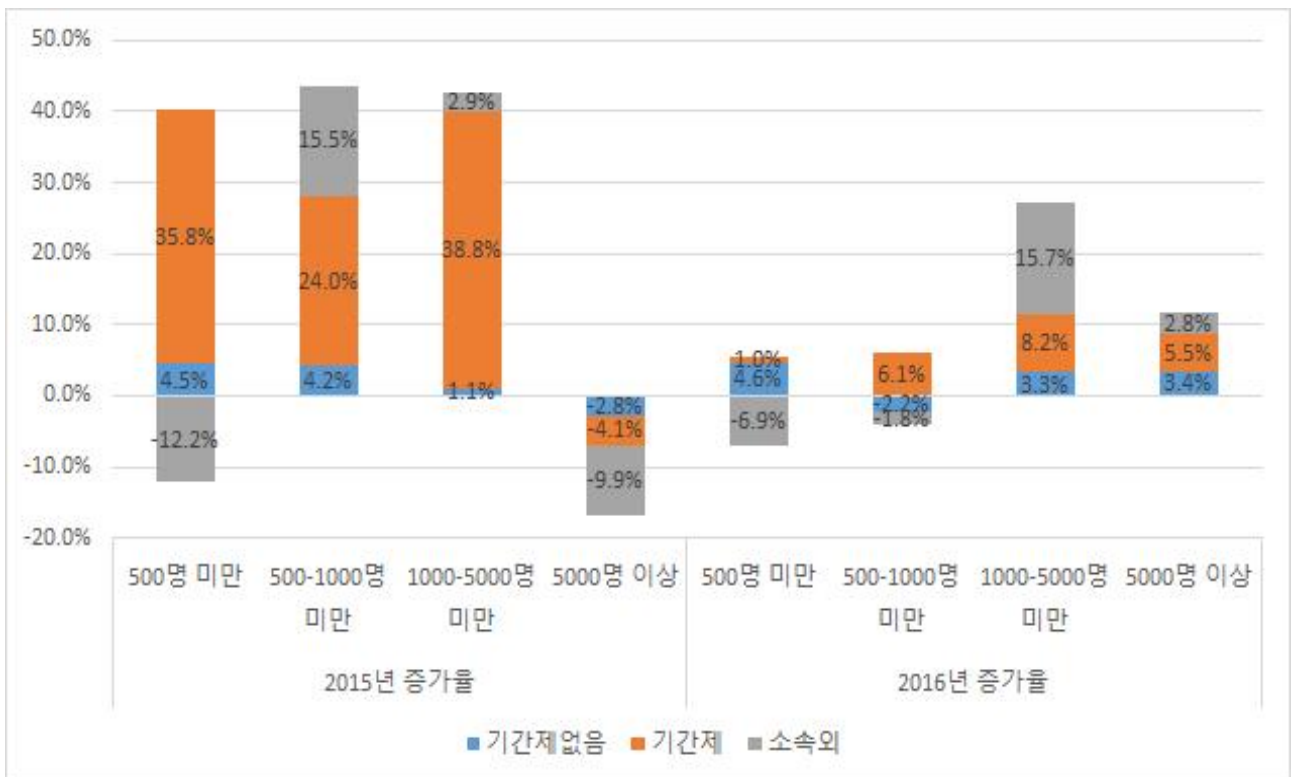


- 규모별 고용형태 증가율을 볼 때, 전국은 기간제의 비중이 각 규모에서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1,000명~5,000명 미만 기업의 ‘소속 외’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국은 500명 미만 규모에서 2015년 대비 기간제 없음 8.1%, 기간제 8.6%, 소속외가 8.3% 증가하여 규모별로는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임
- 특히 500명~1,000명 미만의 규모에서 ‘소속 외’ 증가율은 -3.6%를 나타내 소속 외 고용형태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음
- 서울은 500명 미만 규모에서 2015년부터 ‘소속 외’ 고용형태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1,000명~5,000명 규모에서는 ‘소속 외’ 사용의 증가율이 2015년(2.9%)보다 대폭 증가하여 15.7%를 나타내어 전국규모의 4.0%보다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 5,000명 이상의 규모에서는 3가지 형태의 고용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의 증가율에 비해 모두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I-6】 상시고용 규모별 전국 규모별 고용형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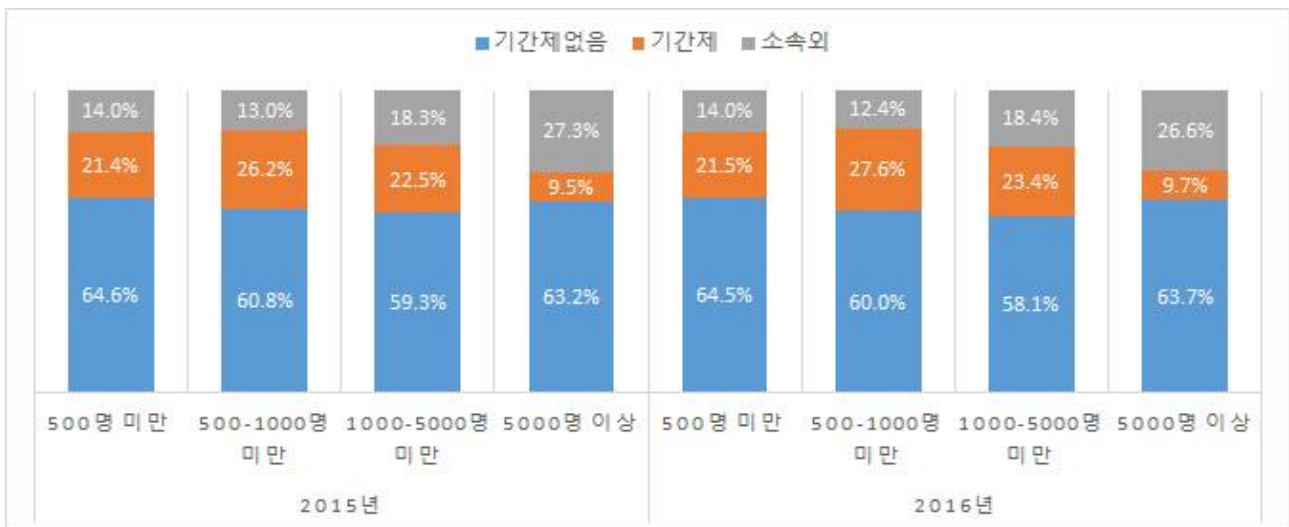


【그림 III-7】 상시고용 규모별 서울 규모별 고용형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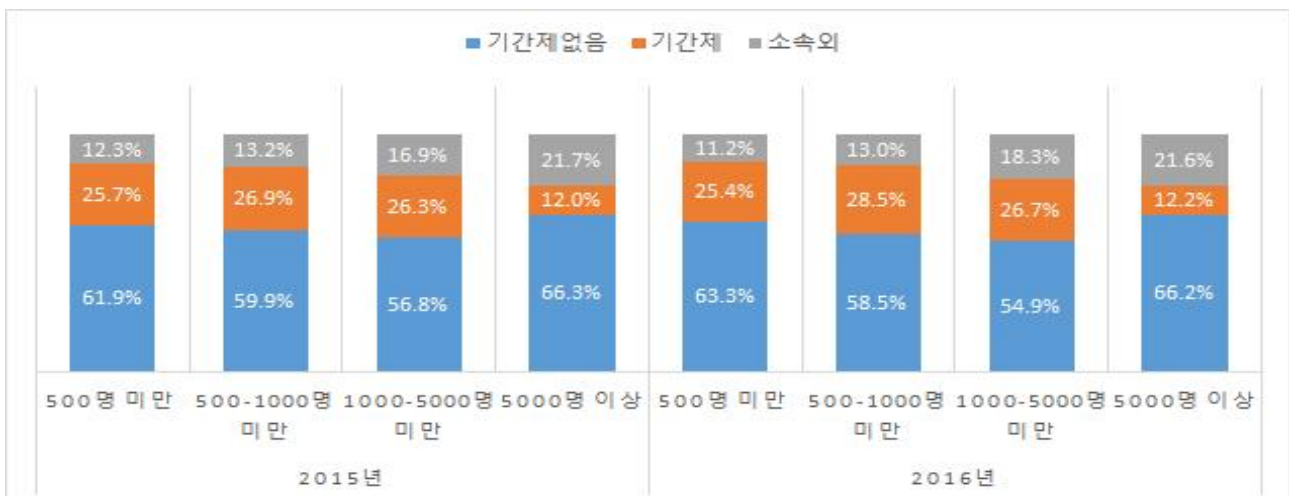


- 규모별 고용형태에서 전국은 1,000명~5,000명 규모 기업에서 ‘기간제’형태의 구성비가 증가  
서울은 500명~1,000명 규모 기업에서 ‘기간제’ 형태의 구성비가 증가
- 전국의 500명 미만 기업의 고용형태 구성비는 2015년과 2016년의 구성비가 유사함
- 그러나 500명~1,000명 미만 기업에서는 기간제 사용 비중이 2.5% 증가하였으며, ‘기간제 없음’과 ‘소속 외’의 비중이 줄어들었음
- 1,000명~5,000명 미만 기업에서는 ‘기간제 없음’의 규모가 줄어든 대신 ‘기간제’ 규모가 늘어났으며 ‘소속 외’ 사용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음
- 서울지역의 주요한 특징은 500명~1,000명 사이의 기업에서 ‘기간제’ 사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임
- 또한 1,000명~5,000명 사이의 기업에서도 ‘기간제 없음’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기간제’와 ‘소속 외’ 형태의 활용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소속 외’의 증가폭이 1.4%를 차지함
- 5,000명 이상 기업에서는 서울의 ‘기간제 없음’ 비중이 66.2%로 전국의 63.7%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간제’의 비중은 12.2%로 전국의 9.7%보다 높음

【그림 III-8】 전국 상시고용 규모별 구성비 연도별 비교



【그림 III-9】 서울 상시고용 규모별 구성비 연도별 비교



### 3. 산업별 고용형태 공시 현황

□ 산업별 ‘기간제 없음’ 고용규모 상위 5개 산업은 전국과 서울 순위가 동일

- 전국과 서울의 ‘기간제 없음’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산업은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나타남
- 제조업을 제외한 4개 산업은 서울의 규모가 전국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 소재 산업별 기업이 전국에 영향을 미침

■그림 III-10 ■ 전국, 서울 기간제 없음 규모 상위 5개 산업



□ 산업별 ‘기간제’ 고용 규모 상위 5개 산업 중 1위와 2위가 산업은 전국과 서울이 동일

- 전국 기간제 고용 규모 상위 5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나타남
- 서울 기간제 고용 규모 상위 5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으로 나타남
- 서울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상위 5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국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상위 5위 내에 포함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III-11 ■ 전국, 서울 기간제 규모 상위 5개 산업



□ 산업별 ‘소속 외’ 고용 규모 상위 5개 산업은 전국과 서울이 순위만 다를 뿐 산업은 동일

- 전국의 ‘소속 외’ 고용 규모는 제조업이 가장 높으며, 서울은 건설업이 가장 높음
- 전국과 서울에서 ‘소속 외’를 많이 활용하는 상위 5개 산업은 건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임

■그림 III-12 ■ 전국, 서울 소속외 규모 상위 5개 산업



□ 증가율로 파악한 ‘기간제 없음’의 상위 5개 산업을 볼 때, 전국은 환경관련업종 증가율이 가장 높고, 서울은 도매 및 소매업이 5위권을 차지함

- 전국의 ‘기간제 없음’ 증가율 상위 5개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원재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순임
- 서울의 ‘기간제 없음’ 증가율 상위 5개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임
- 서울은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순위가 높고, 도매 및 소매업이 5위권 내의 증가율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

■그림 III-13 ■ 전국, 서울 기간제 없음 전년대비 증가율 상위 5개 산업



□ 산업별 '기간제'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은 '국제 및 외국기관'에서 서울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전국 기간제 증가율 상위 5개 산업은 국제 및 외국기관,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수업 순으로 전년대비 기간제 고용 증가율이 높음
- 서울 기간제 증가율 상위 5개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설업 순으로 전년대비 기간제 고용 증가율이 높음

【그림 III-14】 전국, 서울 기간제 전년대비 증가율 상위 5개 산업



□ 산업별 '소속 외' 사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증가율이 높음

- 전국의 '소속 외' 증가율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순임
- 서울의 '소속 외' 증가율 상위 5개 산업은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운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임

【그림 III-15】 전국, 서울 소속외 전년대비 증가율 상위 5개 산업







서울노동권익센터

**동향과 이슈 2016-4**

발행일 2016. 12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발행인 문종찬

03147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Tel.(02)6925-4349 Fax.070-8250-4349 www.labors.or.kr

